

# 충북지역 노인의 여가생활분석<sup>1)</sup>

- 노인단독가구를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f Leisur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Chungbuk Province

- Focused on the Elderly Living Alone or Living with  
their Spouse -

조 명 회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Cho, Myo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leisure life, focused on the leisur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or living with their spouse in Chungbuk,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Two hundred forty four elderly persons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 was utilized for collecting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lderly who were living alone or living with their spouse frequently participated in time spending activities and family oriented activities. The structure of leisure participa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age, educational level, health status, and monthly average income.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leisur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were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average income, and further,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influencing the elderly leisure participation was the educational level.

### I. 서론

의학 및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범세계적인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Cho, 1996), 2000년에는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된다(통계청, 1997).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 변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와 노인 부양의식의 감소 등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능력과 심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효를 자식의 도리로 여겨왔던 우리나라의 미덕은 노인문제를 사회로 부각시키려는 자세를 소극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 본 연구는 1997년도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노년기는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하루는 대부분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년기는 여가의 시기로 극단적으로는 노인의 하루 전부가 여가의 시간일 수 있다. 따라서 풍부하게 주어질 여가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는 노인들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시간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여가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조명희, 1997).

더구나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의 노인들은 고독·고립·무료함이 증가되고 결국에는 노인들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들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으며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이 여가를 잘 보낸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당사자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과 좌절을 빚어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만족스럽게 영위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분석은 고령화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오늘날, 노인복지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적으로 볼 때 충북지역은 노인 인구가 8.4%로 타지역(평균 5.7%)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이동이 매우 안정된 상태이므로 노인 복지 정책 입안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심영 외, 1996).

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 노인단독가구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에 내재한 문제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의 개념

여가생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가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여가란 인간이 생활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며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여가의 개념을 시간 개념, 활동 개념, 주관적·심리적 개념 등으로 볼 수 있다.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여가를 생활시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하여 하루 24시간 중 여가가 아닌 시간(노동·수면·식사·기타 신체적 요구에 필요한 시간)을 제하고 남은 자유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우중, 1986; Neumeyer, 1958). 활동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 자체를 여가로 보고 있다(김길호, 1985; Dumazedier, 1974). 그리고 주관적·심리적 개념은 위의 두가지 개념을 함께 결합시켜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에 따른 자유시간과 그 시간에 내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고 영위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Parker, 1976; 김의숙, 1991).

### 2.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이란 여가의 개념 중 활동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여가활동유형은 개념, 참여빈도, 욕구충족적 특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능동형, 수동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참여빈도에 따라 분류한 여가유형으로는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시청각레저활동, 대중오락활동, 사교적 활동, 비사교적 활동, 무취미적 활동 등이며, 욕구충족적 특성에 따라서는 휴식형, 기분전환형, 자기개발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Parker, 1976).

김의숙(1991)은 여가활동유형을 자기개발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 가정지향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백주현(1990)은 가정지향적 활동·자기개발적 활동·휴양적 활동·오락 및 신체적 활동으로, 홍성희(1991)는 자기개발적 활동·가정지향적 활동·시간소일적 활동·사교적 활동·자기중심적 활동(홍성희, 1991)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성재(1986)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① 친척·친구 방문, ② 집보기 라디오 청취, ③ 집안일, ④ 화투·장기·바둑놀이, ⑤ 노인정·노인 학교 참여, ⑥ 손자녀 돌

보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취미활동 참여 실태는 ① 텔레비전 시청, ② 라디오 청취, ③ 종교 활동, ④ 노인 정·노인회관 참여 활동, ⑤ 화투·장기·바둑 놀이, ⑥ 산책, ⑦ 여행 등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조명희(1997)에 의하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① 가정지향활동, ② 소일활동, ③ 종교·사회참여활동, ④ 오락·사교활동, ⑤ 취미·자기개발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여가활동유형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명희(1997)의 분류에 의거하여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사교활동, 취미·자기개발 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3. 여가활동 관련변수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별 참여 빈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White, 1975; 이현주, 1985). 여가활동참여가 연령의 영향을 받는 점은 연령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위한 자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의숙, 1991). 교육은 인간의 여가 욕구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참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이 여가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White, 1975; 이현주, 1985). 소득도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White, 1975; Gihring, 1983; 이현주, 1985).

노인의 여가활동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장인협·최성재(1990)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 활동의 참여 빈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가 활동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패락 추구 활동), 별 변동이

없는 경우(창의적 활동), 높아지는 경우(긴장 해소 활동)가 있으며, 노년기의 여가 활동의 종류와 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① 자녀들이 성장 또는 독립한 상태, ② 퇴직, ③ 경제적 사정, ④ 건강 상태, ⑤ 활동에의 사회화 정도, ⑥ 개인 생활 목표의 다양성, ⑦ 주거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조명희(1997)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 건강, 용돈 등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충북지역에서 노인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인의 여가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여가활동 참여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밝히고, 영향력을 분석하여 노인여가생활향상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충북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충북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충청북도에서 노인단독가구 상태로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여가활동 참여도에 관한 면접용 질문지이다<sup>2)</sup>. 여가활동 참여도는 선행연구의 분류(심영 외, 1996; 조명희, 1997; 조명희 외, 1997)에 의거하여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사교활동, 취미·자기개발 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 등의 다섯 유형,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 빈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6개 지역(제천, 충주,

2)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심영 외, 1996; 조명희 외, 1997)의 후속 논문임.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의 60세 이상 단독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노인의 조작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나 노인 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만 60세를 노인이 된 것으로 축하하여 왔고 노인들 자신도 60세를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어(이가옥, 1989; 강미선, 1991; 고영수, 1993), 본 연구에서도 이에 의거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남녀 노인 총 285명을 개별 방문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244부이다. 면접조사는 1995년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2인 1조로 구성된 대학생 13팀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표준편차, 평균,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 VI. 결과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0명(40.9%) 여자 144명(59.1%)이며, 연령은 65-75세 미만인 42.0%로 가장 많고 65세 미만(36.2%), 75세 이상(21.8%)의 순이다. 교육수준은 무학력이 88명(36.1%)로 가장 많으며 국졸 83명(34.0%), 중졸이상 73명(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전체노인의 39.0%가 나쁜 편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20만원 미만이 24.6%, 20만-60만원 미만이 36.1%로 60%정도가 6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60만원 이상인 가구가 39.3%나 되어 평균소득은 701,000원이다. 결혼

상태를 보면 유배우자가 68.9% 무배우자가 31.1%로 유배우자가 더 많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56% 정도가 유배우자인 것(Cho, 1996)에 비하면 비율이 약간 높은데, 이는 조사대상 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 지속년수는 5년 미만이 29.6%, 5년-10년 미만이 28.8%로 58.4%가 10년 미만이다. 노인단독가구 형성이유는 자녀 결혼이나 자녀직장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가 7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자녀와 성격·생활습관이 다르거나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는 자발적인 이유인 경우도 20.5%나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명)
성별	남자	40.9(100)
	여자	59.1(144)
	계	100.0(244)
연령	65세미만	36.2(88)
	65세 ~ 75세 미만	42.0(102)
	75세 이상	21.8(53)
	계	100.0(243)
교육수준	무학	36.1(88)
	국졸	34.0(83)
	중졸이상	29.9(73)
	계	100.0(244)
건강상태	나쁜편	39.0(94)
	보통	27.0(65)
	좋은편	34.0(82)
	계	100.0(241)
월평균 소득	20만원 미만	24.6(60)
	20만 ~ 60만원 미만	36.1(88)
	60만원 이상	39.3(96)
	계	100.0(244)
	평균소득	701,000원
결혼상태	유배우	68.9(168)
	무배우	31.1(76)
	계	100.0(244)
단독가구지속 년수	5년미만	29.6(72)
	5년 ~ 10년 미만	28.8(70)
	10년 이상	41.6(101)
	계	100.0(243)
단독가구형성 이유	비자발적	79.5(167)
	자발적	20.5(43)
	계	100.0(210)

\* missing 처리로 인해 표본 수에 차이가 있음.

## 2. 단독가구노인의 여가생활의 전반적 경향

단독가구노인들의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여가활동 참여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소일활동	3.468	0.729
가정지향활동	2.868	1.060
오락·사교 활동	2.022	0.951
취미·자기개발 활동	1.458	0.582
종교·사회참여 활동	1.479	0.759

단독가구 노인들은 소일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가정지향활동, 오락·사교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 취미·자기개발활동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가정지향활동에의 참여도가 높게 나온 선행연구(조명

희, 1997)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그 이유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지향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반면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단독가구노인들은 소일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일활동과 가정지향활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취미·자기개발 활동이나 종교·사회참여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런 결과는 앞으로 단독가구 노인들로 하여금 여가활동의 보다 적극적인 전개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여가활동 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관련변수별 여가활동 참여도

단독가구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연령·교육수준·건강상태·월평균 소득 등의 관련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관련변수별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활동유형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사교 활동		취미·자기개발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연령	65세 미만	87	3.76 a	87	3.07	86	2.12	86	1.52	86	1.53
	65세 ~ 75세 미만	102	3.43 b	102	2.80	102	2.03	101	1.48	101	1.42
	75세 이상	53	3.04 c	53	2.69	52	1.85	53	1.31	53	1.51
	F값	18.786***		2.652		1.248		2.249		0.568	
교육수준	무학	88	3.13 c	88	2.74 b	87	1.83 b	88	1.26 b	88	1.37
	국졸	83	3.33 b	83	2.71 b	83	1.95 b	82	1.39 b	82	1.52
	중졸	72	4.03 a	72	3.20 a	71	2.35 a	71	1.79 a	71	1.56
	F값	43.666***		5.253**		6.508**		20.378***		1.344	
건강상태	나쁜편	94	3.24 b	94	2.68	93	1.92	94	1.34 b	94	1.51
	보통	65	3.52 a	65	3.01	64	2.05	64	1.44 b	63	1.53
	좋은편	81	3.71 a	81	3.02	81	2.14	80	1.61 a	81	1.42
	F값	9.885***		2.984		1.153		4.736**		0.466	
월평균 소득	20만원미만	60	2.99 c	60	2.33 b	59	1.94	59	1.33 b	60	1.38
	20만~60만원 미만	88	3.47 b	88	2.97 b	88	1.96	88	1.30 b	88	1.56
	60만원 이상	95	3.76 a	95	3.11 a	94	2.13	94	1.69 a	93	1.46
	F값	24.508***		11.455***		0.955		13.198***		1.031	

D(DMR-TEST)의 부호는 평균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01 \*\*\* p<.001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는 종교·사회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관련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여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일활동에 대해서는 연령·교육수준·건강상태·월평균소득 등의 관련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일활동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지향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참여하였다. 오락·사교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미·자기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건강상태·월평균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취미·자기개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의 각 유형별 여가활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생활상태가 좋은 노인 즉,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높았다.

#### 4.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 회귀분석을 하기전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소일활동 참여도에는 교육수준( $P<.001$ )과 월평균소득( $P<.05$ )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8.9%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소일활동에 많이 참여했다. 가정지향활동 참여도에는 월평균소득( $P<.01$ )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가정지향활동에 많이 참여했으며 설명력은 7.7%였다. 오락·사교활동 참여도에는 교육수준( $P<.01$ )이 유의한 영향변인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락·사교활동에 많이 참여했으며 설명력은 4.9%였다. 취미·자기개발 활동에는 교육수준( $P<.001$ ), 월 평균소득( $P<.05$ )으로 설명력이 16%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참여했다. 종교·사회참여 활동에는 영향력 있는 변인이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교육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월평균소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표 4> 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소일활동	가정지향 활동	오락사교 활동	취미자기 개발활동	종교사회 참여활동
연령	1.000								
교육수준	-.457***	1.000							
건강상태	-.237***	.298***	1.000						
소득	-.528***	.473***	.299***	1.000					
소일활동	-.356***	.478***	.262***	.424***	1.000				
가정지향활동	-.124*	.169**	.159**	.245***	.336***	1.000			
오락사교활동	-.100	.221***	.092	.097	.187**	.068	1.000		
취미자기개발 활동	-.126*	.369***	.196***	.266***	.388***	.202***	.159**	1.000	
종교사회참여 활동	-.023	.106	-.048	.033	.168**	.178**	.027	.253***	1.000

\*  $p<.05$  \*\*  $p<.01$  \*\*\*  $p<.001$

&lt;표 5&gt; 여가활동 참여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사교활동		취미·자기개발 활동		종교·사회참여 활동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027	-0.093	0.096	0.034	-0.028	-7.355	0.502	0.128	0.049	0.164
교육수준	0.245	0.326***	0.149	0.057	0.785	0.221**	1.184	0.327***	0.263	0.139
건강상태	0.245	0.096	0.184	0.075	0.146	0.043	0.268	0.078	-0.142	-0.079
월평균소득	0.489	0.176*	0.617	0.230**	-0.167	-0.046	0.576	0.154*	-0.025	-0.013
Constant	7.672		3.624		4.690		2.315		2.704	
R <sup>2</sup>	0.289		0.077		0.049		0.160		0.017	
F값	23.759***		4.876***		3.008*		11.008***		0.991	

\* p&lt;.05 \*\* p&lt;.01 \*\*\* p&lt;.001

것을 말해준다. 즉, 교육이 여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주었고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가 있을수록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일활동·가정지향활동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노년기의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권장된다.

## V. 요약 및 결론

충북지역 단독가구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변수를 분석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단독가구 노인들은 소일활동이나 가정지향활동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취미·자기개발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 참여도는 연령·교육수준·건강상태·월평균소득 등 관련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월평균소득이 많은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셋째,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소일활동 참여도에는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 가정지향활동 참여도에는 월평균소득이 영향을 미쳤다. 오락·사교활동에는 교육수준이, 취미·자기개발활동에는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 영향을 미쳤다. 각 변인들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각각 28.9%, 7.7%, 4.9%, 16%의 설명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사회참여 활동 참여도에는 영향력있는 변수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단독가구를 형성해서 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도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참여도가 높았으며,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로 소일활동과 같은 소극적 여가생활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함께 오늘날 단독가구노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자신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심리적인 배려와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노인자신을 보다 나은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생활을 분석함에 있어 여가활동 참여도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가생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여가 선호도, 여가활동제약요인 등 보다 여러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수(1993). 혼자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호(1985). 소비자 레저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중(1986). 도시대학생의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의 연구. 고려사대논집. 1.
- 박재간·김태현(1986). 현대 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27-40.
- 박재간·이정숙·김태현(1984). 노인 여가시설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노인문제 연구보고서 7.
-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이가옥 외(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현주(1985).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최성재(1990).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명희(1997). 노인들의 생활상태에 관한 연구 II. 서원대학교 융용과학연구. 6(1), 53-63.
- 조명희·조영희·심영·김대년(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 통계청(1997). 95년 인구추계결과. 통계청.
- 한국 갤럽조사연구(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 현두일(1984). 노인의 여가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노년학. 4, 88-95.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o, M.H.(1996). Etude sur les Conditions de Vie et les Besoins des Personnes Agées en Coré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e Strasbourg.
- Dumazedier, J.(1974). Leisure · International Encycloph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 Mecomillan & Free Press.
- Gihring, T.A.(1983). Leisure-Time Activities in an Urban Nigerian Sett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 108-124.
- Neumeyer, S.R.(1958).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Paladin, 20-25.
- Parker, S.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
- White, T.H.(1975).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191-199.